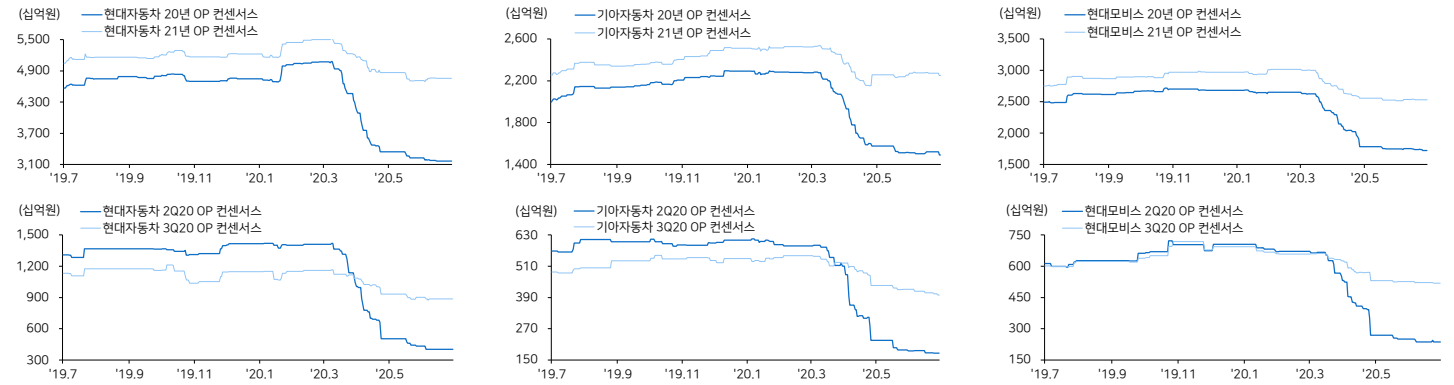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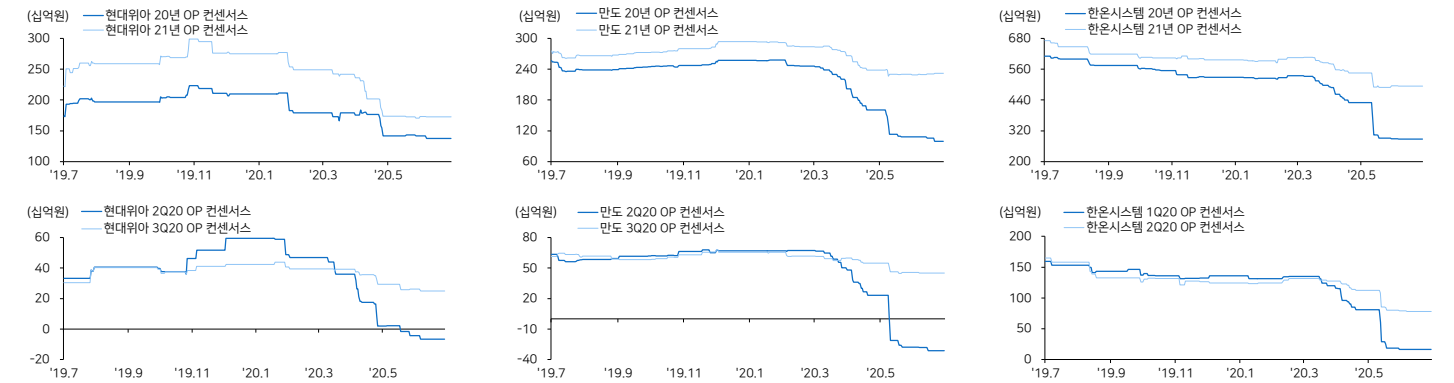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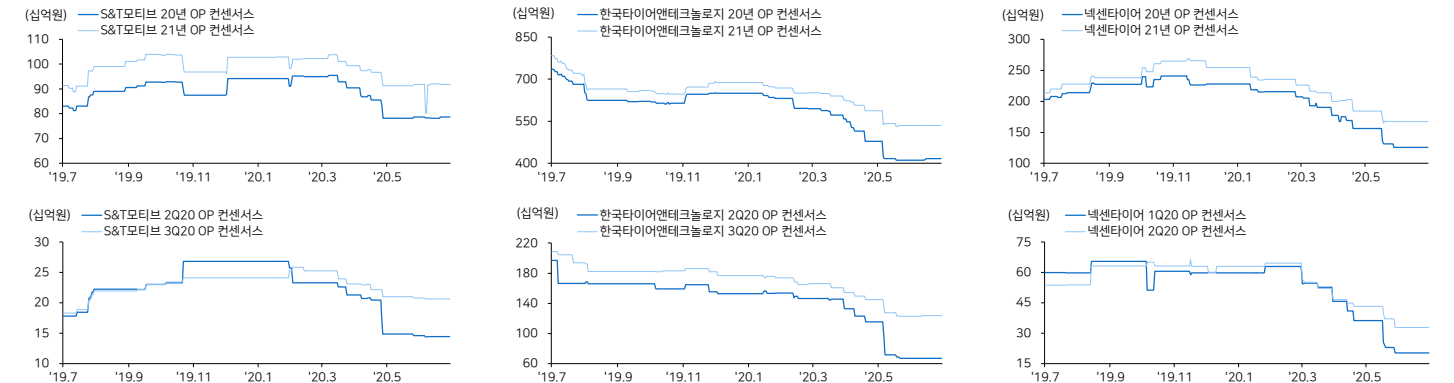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중국 영업 총괄 포드 출신 리홍핑에 맡긴다 (한국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전기트럭 등 친환경차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독일 다임러 출신을 부사장으로 영입, 중국사업을 총괄하는 HMG는 중국인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를 최고사업책임자(CEO)로 임명해 부진 탈출에 나선다.
<https://bit.ly/2YNLxDy>

현대·기아차 상용차 개발 총괄에 다임러 출신 마틴 자일링어 영입 (서울경제)

현대·기아차가 다임러트럭의 전동화 부문 기술개발 총괄 출신 마틴 자일링어를 연구개발본부 상용개발담당 부사장으로 영입, 상용차 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수소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력을 상용차로 확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https://bit.ly/31v3Bxl>

장남과 누나들이 손잡았다, 한국타이어 결국 형제의 난 (조선일보)

조선비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지난 26일 아버지 조양래 회장의 지분 전량(23.59%)을 사들이 최대 주주(42.9%)로 올라서자, 형인 조선식 부회장과 누나들이 "가족 간 힘을 뺏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선다.
<https://bit.ly/2NixdPN>

중 전기차 배터리, 코로나19에 직격탄...10개월째 사용량 감소 (아이뉴스24)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인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음. 10개월 연속 중국 전기차(EV, PHEV, HEV) 탑재 배터리 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https://bit.ly/3gjPSON>

현대차 4세대 싼타페, 2년 만에 신차급으로 탈바꿈 (국민일보)

현대자동차의 중형 SUV 싼타페가 2년 만에 부분변경 모델로 출시. 4세대 부분변경 모델이지만 새로운 디자인과 플랫폼, 파워트레인 등이 적용돼 거의 신차와 다를없는 수준으로 바뀔.
<https://bit.ly/38dkPkk>

중국 출격하는 쏘나타...반한감정 완화에 판매 속도내나 (한국경제)

현대차가 다음달 중국에서 신형 쏘나타를 선보일 예정. 중국 현지에서 반한감정이 누그러들고 있다는 기대와 함께 흥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다음달 중국에서 8세대 쏘나타를 출시.
<https://bit.ly/2AlJ0w>

세계 100위권 한국 차 부품업체 8개로 늘어...현대모비스 7위 (연합뉴스)

자동차 산업 흐름이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업체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 오토모티브 데이터센터가 발표한 세계 상위 100대 자동차 부품업체에 한국 기업이 8개 포함. 1년 만에 2개 업체가 추가.
<https://bit.ly/3d0ekFy>

CEO도 월급 50% 삭감...닛산 자동차 구조조정 계속 (KBS뉴스)

지난달 한국에서 16년 만에 철수한 닛산이 구조조정을 계속하겠다고 밝힘. 우치다 CEO는 회사 재건을 위해 사업구조 개편을 하고 반년간 본인 기본급의 50%를 삭감하겠다고 발표. 실적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임한다는 각오.
<https://bit.ly/3dRIR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